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1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4월 11일 (음력 3월 14일) 화요일

"내 생애 가장 기쁜 날"

■나주 사는 필리핀 신부 빌마씨 첫 출근

"한국 생활 5년만에 오늘이 가장 기뻐요."

5년 전 필리핀에서 시집와 나주에서 살고 있는 빌마 알반타드(33)씨는 10일 오전 가슴이 무척이나 설렜다. 이날부터 나주 남평미래병원 간병인으로 근무를 시작, 반듯한 일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빌마씨는 이달 말까지 20일동안 일해 70만여원의 보수를 받는다. 다음 달에는 정식으로 83만원의 월급을 손에 쥐게 된다. 빌마씨는 스스로 번 돈으로 한창 재롱을 부리는 아들(5)에게 예쁜 옷을 사 입힐 것을 생각하니 새로운 힘이 솟았다.

유창한 한국말로 "앞으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세요"라며 상냥하게 대하는 그에게 노인들은 미소로 답했다.

빌마씨는 한국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게 지내야했던 새댁 시절을 그리며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 준 사람들에게 새삼 고마워 했다.

2003년부터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맡아온 '결혼이민자지원연대'(전남대표 홍기술 목사)와 일자리를 알선해 준 '전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시채)는 빌마씨 등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또 간병인 근무를 선뜻 허락해준 남평미래병원 관계자들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빌마씨는 관계 법규에 의해 이미 한국적을 취득한 '당당한 한국인.'

복지단체 도움으로 5년만에 간병인 취업

"사람 취급 안해 주는 것이 가장 괴로워"

그러나 빌마씨의 한국생활 초창기는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빤히 쳐다볼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친구도 생기고 돈도 벌 수 있어 정말 좋아요."

2006년 미국 슈퍼볼 최우수선수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로 국제결혼 여성과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국제결혼 후 올 1월말 현재 광주(1천700여명)·전남(2천342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여성은 모두 4천여명. 전남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이른바 '코시안'(코리아와 아시안의 합성어)들도 3천64명이나 된다. 전남도내 초(878)·중(54)·고교(15)에서는 모두 947명의 코시안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국제결혼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궁핍한 생활수준이다. 최근 전남도가 도내에 거주중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732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의 총소득은 132만 2천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스스로 한 달 최저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44만원보다 11만 8천만원 부족한 액수다. 음식값을 줄이거나 굶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의 12.8%(185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 여성들의 취업이 얼마나 간절한 지를 보여주는 실태다.

사회 적응도 문제다. 1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실력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2점에 머물렀다. 국제결혼 여성 남편의 아내 나랏말 실력은 5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부부, 친인척관계는 때때로 큰 스트레스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체성문제로 삐뚤어질 수 있다며 걱정이다.

10일 취업한 빌마씨처럼 국제결혼 여성들이 함박 웃을 수 있게 하는 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국제결혼해 나주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빌마 알반타드씨가 10일부터 남평미래병원 간병인으로 출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감원 간부가 허위보고 압력"

감사원, 외환銀 '헐값 매각' 조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10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원 간부가 담당 실무자에게 허위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이 BIS 비율 자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만큼, 상부의 지시가 론스타를 인수자로 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는 지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조사를 통해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BIS 비율 6.16% 수치에 대해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산정상의 오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조사과정에서 "BIS 비율 수준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출신의 전용준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획득에 결정적 도움이 된 팩스 5장과 관련된 일부 진술을 했음을 시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멸종위기 1급 식물 풍란 복원

진도 관매도에 15,000포기

정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식물 7종 중 하나인 풍란이 고향인 진도군 관매도 복원지에서 다시 태어났다.

순천향대 신현철 교수 등 풍란 복원연구팀은 자생지 개체로부터 '종자 배양' 방식으로 3년에 걸쳐 1만5천 포기의 풍란을 이식하는데 성공했으며, 지난 8일 관매도에서 공식 복원행사(사업비 5억원)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풍란은 2002년 조사 때 관매도와 제주도 일부에서 발견됐고 2003년 조사에서는 관매도 개체군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 뒤 복원 사업이 본격 진행돼왔다.

나무와 바위 곁에 붙어 자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난초인 풍란은 노끈 모양의 굵은 뿌리와 짧은 줄기, 넓은 선형에 길이 5~10㎝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흰색에 향기를 가진 꽃이 6~7월에 핀다.

관상적 가치 때문에 자생지를 중심으로 남획돼 멸종될 위기를 맞았으며, 우리 풍란 대신 일본산 풍란이 국내로 들어와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풍란 복원을 위해 시험관에 넣은 풍란 시제품을 제작, 문화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했으며 자생지와 복원지를 생태관광지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풍란을 이미지화한 로고를 개발했으며 원산지 판별을 위해 관매도 풍란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 마커(지표)를 보존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근로소득보전세제' 대상 일용직근로자 등 380만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위해 정부가 신규로 소득을 파악중인 대상 인원이 모두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이들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중 '96만가구, 168만명'을 EITC 대상자로 확정,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신규 소득파악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캐디 등 국세청의 세원파악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업군이다. /이종태기자 jtlee@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말한다. 저소득층 세제 보전을 위한 제도로,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세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